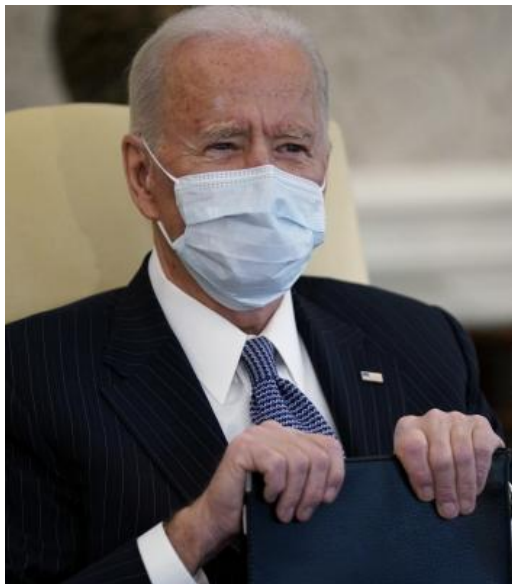


역차별

2021년 6월 5일

미국 법무부, 예일대 아시아·백인 입학차별 소송 취하



트럼프 전 정권서 제기된 소송 철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된 입학차별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백인·아시아계 미국인 학부 지원자를 역차별해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가용한 사실관계와 환경, 법률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인종과 출신, 국적에 기초해 지원자들을 차별한다고 한 결정문 역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은 판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철회된 소송은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제기된 것이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을 차별,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피부색·출신 지역·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소송 핵심은 예일대의 신입생 선발 과정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백인 지원자의 합격 확률이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4분의 1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2096>





미국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성의 가치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학습 환경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개인, 동급생 및 커뮤니티 전체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혜택은이 나라의 교육, 경제 및 시민 생활에 크게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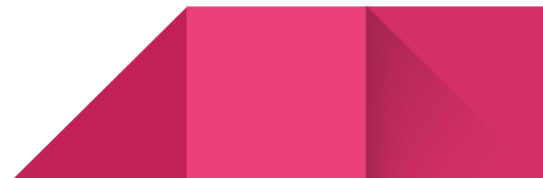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 환경은 개별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¹ 서로 다른 관점과 삶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면 교실 안팎에서 학문적 및 사회적 담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호 작용은 그 자체로 교육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풍부한 학업 환경을 만들기

선택함으로써 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연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업 진도를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학생들이 "오늘날 점점 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 문화, 아이디어 및 관점에 노출 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² 더욱이 고등 교육 기관은 "모든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을위한 문을 여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³ 결과적으로 "다양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의 적절한 제도적 사명의 핵심입니다."⁴

이러한 모든 이유로, 부서는 고등 교육 기관이 다양한 학생 조직을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는 데 대한 강력한 관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⁵ 이 지침은 고등 교육 기관이 이러한 강력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의견에 명시된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유연성의 정도를 다룹니다. 대법원이 분명히 밝혔 듯이, 이러한 단계에는 아래에 설명 된 바와 같이 좁게 맞춤화 된 방식으로 개별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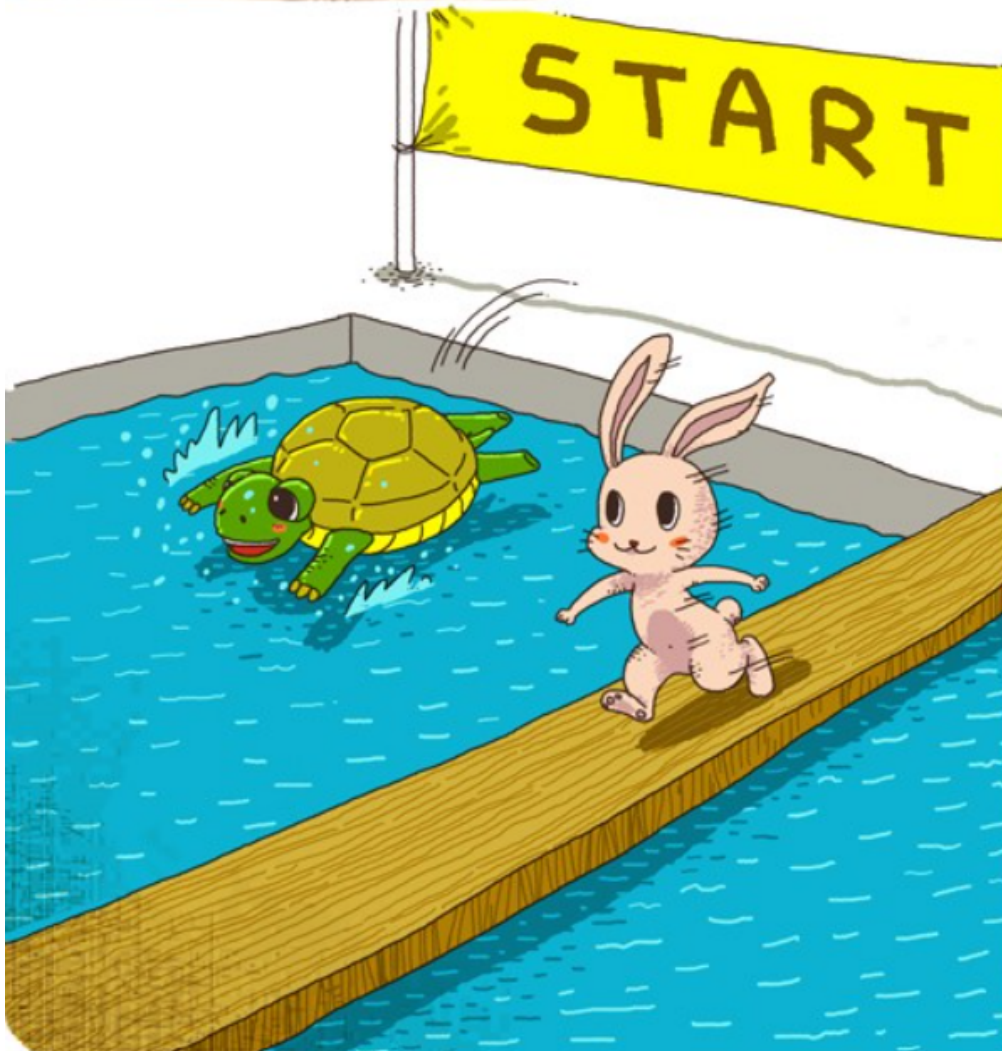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guidance-pse-201111.html>



경쟁은 정당한가?

<공정>

다양성을 인정할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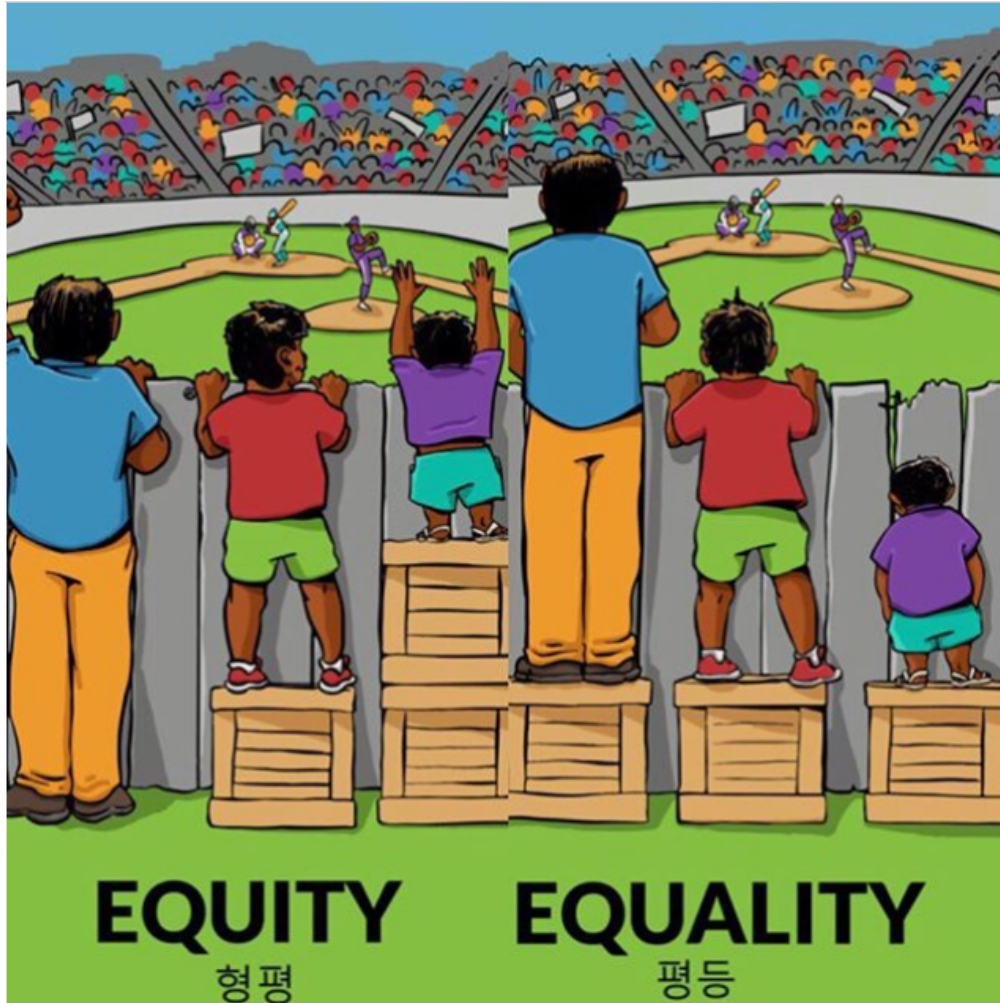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

우화 ‘토끼와 거북의 경주’를 통해 ‘차별과 역차별’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 흔히 비유하는 우화죠. 거북을 만만하게 본 토끼가 도중에 자버리는 바람에 거북이 승자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지만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이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북보다 유리한 신체조건을 타고 난 덕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정한 경쟁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아무리 노력해도 토끼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타고 난 신체조건이 불리한 거북에게 토끼와 같은 조건에서 경주를 시키다니, 거북에겐 너무 불리한 시합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도 거북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편견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처한 여성과 혼혈인, 신체적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 등을 들 수 있지요.

자, 이제 토끼와 거북의 얘기로 돌아와 여러분이 경기의 심판이 되어 봅시다. 거북의 차이를 인정해 별도의 혜택을 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 거북이 먼저 출발하게 하거나 토끼가 달릴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달리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거북은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라고 여길 겁니다. 반면 토끼는 어떨까요?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한 건데 거북에게만 혜택을 주다니, 이번에는 오히려 토끼가 불리한 시합이 됐습니다. 경주란 원래 똑 같은 출발선에서 결승점까지 달리는 게 아니었나요? 거북의

신체조건이 불리하다고 혜택을 주면, 이번에는 토끼가 차별 당하는 셈이지요. 거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합한다면 토끼 입장에서 불공정한 시합이 될 겁니다. 토끼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도리어 차별 당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역차별과 관련한 사례를 더 짚어보고, 여러분이 심판이라면 과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규칙을 어떻게 정할 지 생각해 보세요.

<저작권자©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하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3. 아홉 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4.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5.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
6. 오후 다섯 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7.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8.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9.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11. 그들은 돈을 받아 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12.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띄약별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13.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14.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삯을 주기로 한 것이오.
15.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16.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